



손양원 목사(왼쪽 두번째)와 김구 선생(왼쪽 세번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가 돌봤던 한센병 환자들.

한센인에 헌신...용서·위로의 삶 '여수의 성자'

故 손양원 목사 영화관서 만난다

다큐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20일 개봉

오늘 광주 본향교회 시사회

고(故) 손양원(1902~1950) 목사는 한센병 환자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 성자다. 모진 박해와 고문에도 신사참배를 거절했고, 한센병 환자들의 고통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했다.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를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여수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사랑, 용서, 위로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손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극장에서 개봉한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감독 권혁만 PD)은 지난해 12월 방영된 KBS다큐멘터리 '죽음보다 강한 사랑-손양원'을 새롭게 영화화한 작품이다. 손 목사의 삶을 다룬 영화가 개봉하는 것은 1977년 만들어진 '사랑의 원자탄'(감독 강대진) 이후 37년 만이다.

영화는 손 목사의 평범하면서도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낸 이면을 그린다. 특히 지난해 8%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다큐보다 러닝타임이 두 배 길어지고, 내용이 새롭게 구성됐다. 이미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다시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영화적인 재미와 감동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다.

경남 함안 출신인 손 목사는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 이듬해 한센병 환자 복지시설인 여수 애양원의 교회에 부임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손 목사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다 1942년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전향해야 출옥할 수 있다는 담당 검사의 위협을 뿌리치고 광주 형무소에서 경성 구금소, 청주 구금소 등으로 옮겨다니며 광복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1948년 여수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실의에 빠졌

던 손 목사는 아들들을 숨겨주려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맞아 보살폈다. 그리고 1950년 9월 한센병 환자들과 교회를 지키다 공산군에 체포돼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권혁만 PD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은 종교인의 삶을 다루지만 결코 종교적인 영화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그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 위로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은 손 목사가 양자로 삼았던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 어린 시절 아버지와 두 오빠를 잃은 손동희 권사의 시선으로 그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 손 목사가 섬겼던 여수 애양원 생존자들의 육성 증언, '연탄길' 이철환 작가의 일러스트와 샌드아트로 주요 장면들을 따뜻하게 재현했다. 제작진은 애양원에 근무했던 선교사 등을 찾기 위해 은퇴한 선교사들의 마을인 미국 '블랙마운틴'을 찾기도 했다. 배우 이광기와 최강희, 강석우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12일 오후 2시 광주 본향교회에서 시사회가 열린다. 문의 062-959-0001.

한편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은 여수 애양원에 있는 성산교회에서 손 목사 관련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2012년 70억원을 들여 이 일대(총면적 8만4580㎡)를 한센병 환자들과 애원을 함께한 손 목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종교테마 공원으로 꾸몄다.

손 목사의 헌신적인 삶은 그동안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제작됐다. 고려 오페라단이 창작오페라 '손양원'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무대에 올렸고, 솔라이트 뮤지컬 선교단이 뮤지컬 '손양원'을 공연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스무살 맞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내일 '무등의 울림 二十年' 연주회...오정해·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등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4년 창단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김광복 전남대 교수가 초대 지휘자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대금 명인 조창훈, 이태백(목원대 교수), 심인택(우석대 교수)씨가 수장을 맡아 다양한 작품을 공연해왔다. 김광복 교수는 지난해 16년만에 다시 컴백, 현재 관현악단을 이끌고 있다.

국악관현악단은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특히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문명란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부친 '춘산에 불는 불이', '오월 광주-이 땅에 살으리랴' 등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으며 김영재·백대웅씨 등이 작곡한 창작곡들을 초연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창단 후 처음으로 부지휘자

를 위촉, 최원복씨가 지난 10월 데뷔 무대를 갖기도 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20년을 기념하는 정기 연주회 '무등의 울림 二十年'가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15 아시아문화의 전당 개관과 2015 아시아 유니버시아드 성공 기원도 함께 담은 무대이기도 하다.

국악 스타 오정해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강상구씨가 작곡한 위촉곡 '하늘을 담은 바다'로 막을 연다. '물'을 매개체 삼아 아시아의 하나됨을 관현악곡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어 김영길씨가 '박종선류아쟁산조'를 협연하며 오정해씨가 단가 '사월가'와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준다.

또 소리꾼 최은호·유지숙씨가 '장부타령', '개타령', '슬비타령' 등을 선사하며 백대웅의 관현악곡 '남도 아리랑'으로



김덕수씨

오정해씨

흥겨움을 더한다. 몽골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몽골 연주자 나란통갈락이 전통악기인 호치르 협연 무대를 갖는다. 연주곡은 '희상 나라'다.

피날레 무대는 대한민국 사물놀이의 산 증인 김덕수가 이끄는 '한울림예술단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이다. 박범훈 작곡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3악장'을 연주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3. /김미은기자 mekim@



생활 옹기의 숨결

'옹기장' 이학수 초대전... 16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우리 음식문화의 가장 큰 특성은 발효 식품이 많다. 된장, 고추장, 김치 등 밥상에 오르는 반찬 대부분이 발효를 통해 맛을 낸다. 발효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옹기다.

전통 옹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6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남 무형문화재 제37호 옹기장 이학수 선생을 초대해 '미력옹기'전을 개최한다.

이 씨는 9대에 걸쳐 300여년 동안 전승되어온 '미력옹기'에 전통과 장인 정신을 녹여낸 작품을 선보인다. 실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소품에서부터 소꿉고리, 삼단지, 오단지, 영병, 솟병, 물 뜻이, 살주항아리, 찻상, 남도 항아리까지 6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 씨가 만드는 보성 미력옹기는 형태, 색깔, 크기, 두께 등에 있어서 전통성과 예술성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흙덩이를 판자처럼 길게 늘어뜨려 그릇



'솟병'

의 틀을 만드는 '젓바퀴 타레 기법'으로 만들어 가볍고 단단하며, 통기성과 정확도가 뛰어났다.

이 씨는 단국대 도예과를 졸업했으며 제18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제4회 대한민국도예대전 대상, 제23회 전승공예대전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410-8428.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도서정가제'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판(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한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덕 장관은 오는 14일 출판 및 도서 유통 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하고,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대형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